

지역의료 강화대책 발표

지역우수병원 지정 ... 공공병원 신·증축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11월 11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살지 않더라도 응급 및 중증질환과 같은 필수의료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민·공·국립 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필수요리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요건,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질을 달성하는 중소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해 지역 내 포괄적인 2차 진료기능을 강화한다.

지역우수병원에는 명칭을 표시토록 해 지역주민 이용을 유도하고, 성과를 분석해 보상 등 지원과 연계하며,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에는 건강보험 수가 지역가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2020년 상반기까지 지역우수병원에 대한 지정요건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지정을 추진한다.

또한 전문병원의 지정분야(현재 재활의학과·관절 등 18개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 지정분야를 발굴하고, 모집주기를 단축(3년→1년)하고, 지정기준을 개선해 전문과목·질원에 대한 의료 질을 높인다.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신·증축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자원을 확충해나간다.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거창군, 영월군, 상주군, 통영군, 진주군, 동해군, 의정부군, 대전동부권, 부산서부권 등 9개 지역에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

중진료권 단위로 지역우수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현재 14개)로 즉각 이송하기 어려운 환자의 1차 대응을 강화한다.

공주권, 영주권 등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중진료권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육성해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해나간다.

○...지역에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의료기관의 전공의 배치 확대를 논의하고, 의료인력 파견과 간호인력 지원을 늘려나간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 전공

의 배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련환경평가에서 공공의료 기여도 관련 지표 반영 등을 논의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비수도권 위원을 포함한다.

국립대병원 등에 예산을 지원해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력 파견을 활성화 한다.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 지역 및 기관을 올해 하반기부터 확대한다. 기존 의료취약지 58개 군(郡) 병원에서 82개 모든 군 병원 및 의료취약지 58개 군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지역에서 필수요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취약지 의료기관과 응급·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 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을 강화한다.

○...17개 권역과 70개 지역별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역 내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유도·조정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필수의료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획·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의료원 등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병원을 우선 지정한다.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지역우수병원 등 진료역량이 있는 민간병원 중 공익적 요건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민간의료자원을 활용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협력을 총괄·조정하고, 권역 단위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지역의료 역량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파견과 임상교육 등을 수행하며, 국립대병원을 우선 지정한다.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과 필수의료 협의회를 구성해 지역별 의료기관에 맞는 협력모형을 만들어나간다. 필수의료 협의회 내에서 중증응급환자의 효과적 이송·전원, 퇴원환자의 연속적 건강관리, 지역보건의료기관 교육·상담 등을 위한 협력모형을 발굴·구체화한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번 대책으로 지역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공·민간병원, 지방자치단체, 보건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규숙·이진숙 기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급

간호인력 처우개선 유도 등 보상체계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제도'는 사업 참여 확산과 함께 간호인력 처우개선 등을 통해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첫 도입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올해 9월 기준 전국 510개(4만2539병상)이다. 이번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2018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분기 이상 운영기관 중 평가에 참여한 395개 기관으로 총 151억7000만원을 기관별로 차등 지급했다.

인센티브 규모는 2018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공단부담금 총액의 2% 수준이며, 향후 병상 확대와 더불어 인센티브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8년 사업운영 성과평가를 위해 △공공성(평가자료 제출) △구

조(통합서비스 참여율) △과징(간호인력 처우개선 지원, 고용형태, 배치기준 준수) 등 총 3개 영역의 5개 지표를 활용했다. 평가결과에 따라 대상기관을 3등급(A, B, C)으로 구분했다.

인센티브 지급액은 기관별 평가 등급 및 급여비 규모에 비례해 산정했다. 규모에 따른 적정보상을 실현하면서, 동일 등급에서는 급여비 규모가 작은 기관의 지급률을 높이는 등 중소병원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했다.

간호공단 관계자는 "이번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요양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확산 및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유도하는 등 보상의 선순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향후 인센티브 규모를 확대하고, 환자 안전 및 이용자 만족도 등 서비스 질 영역으로 단계적으로 평가영역을 확대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규숙 기자 kschung@

올해의 간호인상 수상 후보 추천 안내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올해의 간호인상 수상 후보를 다음과 같이 추천 받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분	지원 자격
올해의 간호인상	간호사로서 2019년 한 해 동안 귀감이 될 만한 선행과 봉사활동을 통해 간호정신을 구현하였거나 사회적으로 간호전문직의 위상 정립에 크게 기여한 자

■ 제출서류

- 1) 추천서 1부
- 2)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 1부
- 3) 이력서 1부(개별양식 사용, 사진은 파일 첨부)
- 4) 기타 공적사실 입증자료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1), 2) 서식을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상 후보지의 추천

- 1) 각 시·도간호사회, 산하단체
- 2) 개인 및 단체(중요회를 통해 접수, sbpark@koreanurse.or.kr)

■ 지원마감: 2019년 12월 27일(금),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발표: 2020년 2월 초 예정(개별 공지)

■ 시상: 2020년 2월 대한간호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시상

노인 진료비 30조원 돌파 ... 건강보험 진료비의 41%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30조원을 돌파하면서 전체 진료비의 4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70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9%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07만명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77조9104억원으로 전년 대비 10.1% 늘어났다. 이중 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 진료비는 31조8235억원으로 전체의 40.8%에 달했으며, 2011년 대비 2.1배 증가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456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31만3000원 늘었다. 전체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52만8000원이었다.

2018년 만성질환(12개 질환) 진료인원은 1801만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으며, 고혈압(631만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관절염(486만명), 정신 및 행동장애(314만명), 신경계질환(309만명), 당뇨병(304만명), 간의질환(177만명), 악성신생물(160만명), 심장질환(153만명), 갑상선의 장애(138만명), 대뇌혈관질환(97만명), 만성신장병(23만명), 호흡기질환(5만명) 순이었다.

만성질환 진료비는 31조12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숙 기자 jslee@

제40회 간호문학상 82명 응모

4개 부문 수상작 12월 중 발표

간호사신문이 주최하는 제40회 간호문학상 작품공모가 10월 31일 마감됐다.

소설 12명, 수기 23명, 시 21명, 수필 26명 등 4개 부문에서 총 82명이 응모했다.

간호사 68명과 간호대학생 14명이 참여했다.

소설과 수기 부문에 대한 심사는 전상국 작가(강원대 국문학과 명예교수), 시와 수필 부문에 대한 심사는 홍정선 인하대 한국어문학 과 명예교수가 맡는다.

당선작은 12월 중 간호사신문

을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내년 2월 대한간호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상금은 소설과 수기부문의 경우 당선작 70만원·佳作 50만원, 시와 수필부문의 경우 당선작 50만원·佳作 30만원이다.

간호문학상은 간호문화 발전과 간호사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1978년 간호사신문(당시 간호신문) 100호 발간을 기념해 제정됐다. 지난해까지 총 268명의 간호문인을 배출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주식회사 아이비에스티는

국내 유일 의료교육 S/W 개발 및 기술연구 개발업체입니다.



Debriefing

실습에 대한 실습자의 모든 행동을 SIMPREC만의 특화된 기술로 구성한 국내 최초 시스템



Views

하나의 SIMPREC Views (OSCE)로 다수의 방을 개별로 제어하는 시스템



Cart

SIMPREC의 모든 기능과 이동성을 갖춘 교육 멀티미디어 학습장치



VMR

가상환자에 초점을 둔 실습용 환자 기록장치